

 천주교 서울대교구 구로3동 성당 주보성인 :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08375 구로구 디지털로 27길 82 홈페이지 www.guro3cc.com ☎ 사무실 857-8541~3 팩스 857-8549 부속기관 : 골별유치원 857-8545 요셉어린이집 857-8546	미사 안 내	주 일	토요일 주일 19:00 06:30 (새 벽)	
			10:00 (중고등부 소성전) 10:30 (교 중)	
			12:00 (낮) 12:00 (초등부 소성전)	
			16:00(국제미사) 19:00 (청 년) 21:00 (밤)	
	평일	새벽 6:30 / 저녁 7시	(목)오전 10시	
예비자교리	일요일 낮 12시 / 화요일 저녁 8시			
유아 세례	3월 6월 9월 12월 두 번째 일요일 (초등부 미사)			

새 사제 첫 미사

4월 22일(일) 교중미사 10시 30분
유상철 세례자요한 이현진 바 오 로

알 림

- 성경공부 동영상 시청 안내
(홈페이지 주소 : <http://guro3cc.com> → 성당소식 → 동영상자료)

모 임

모 임	일 시	장 소
· 꾸리아 월례모임 10u	4/15(일) 오후 2시	지하강당
20u	4/15(일) 오후 12시	지하강당
30u	4/15(일) 오후 2시	소성전
· 울뜨레아	4/15(일) 교중미사 후	지하강당
· 만나회 월례회의	4/16(월) 오전10시	6교실
· 제대회 월례모임	4/17(화) 오전11시	1교실
· 성체분배자 성시간	4/23(월) 19시 45분	성체조배실

외떡교우 배우자 교리 안내

- 시작일시 : 5/6(일) 12시 (교중미사 후 / 지하강당)
- 기 간 : 3개월 / 교재 : 함께 하는 여정
- 세 례 예 정 2018년 8월(두번째 주일)
- 접 수 기 간 5/5(토)까지 (사무실)
- ※ 부부가 함께 교리에 참석 하십니다.

예비신자 교리반

(일) 낮 12시	김인기 베드로
(화) 저녁 8시	홍훈표 이시도로 신부님
세 례 예 정	2018년 11월

- * 처음부터 함께 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권면하여 선교의 풍성한 열매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방문교리 신청 안내

- 거동이 불편해서 예비자 교리반에 참석하지 못하는 분을 위하여 방문교리 신청을 받습니다.
- 문의 / 접수 : 교육분과장 010-7244-8520 / 사무실

태중 아기 축복식

- 일 시 : 4/21(토) 저녁 7시 토요일미사 중
- 대 상 : 소중한 생명을 가지신 임산부

* 전입교우 만남의 시간 *

- 일 시 : 4/29(일) 교중미사 후
- 장 소 : 주임신부님 사무실
- ※ 구역장·반장님은 전입교우에게 연락하여 주시고 함께 참석바랍니다.

주보 7면

- 방송인들과 함께하는 동아리교실
-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말씀하시는 행동하는 교리

“한국 평신도를 위한 회년”

(기간 : 2017년 평신도주일-2018년 11월 11일 평신도주일)
<전대사 조건>

- (1) 교구장 주교가 정한 회년 행사나 신심행위에 경건히 참여하기 (본당에서의 ‘첫 목요일 성시간’)
- (2) 순례지 방문하여 성소를 위하여 기도하고, 주님의 기도, 신경, 복되신 동정 마리아를 부르는 간구로 기도하기.

* 교무금에 대한 당부의 말씀 *

교회는 신자들의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교회를 유지, 발전시켜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교무금은 성소자 양성, 교회 운영과 관리, 사회 복지 사업, 선교사업과 해외 원조사업을 위한 기금 등으로 쓰이며 반드시 내야하는 신자의 의무입니다.

E-마트 마일리지 적립금 안내

본당 신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로 모은 E마트 마일리지 적립금이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영수증 수거함)

보스코성가대(일요일 교중미사) 단원 모집

- 연 습 : 매주(목) 저녁 8시 / (일) 오전 9시
- 대 상 : 55세 이하 남, 녀 신자
- 문 의 : 단장 010-8949-7142

다음 주일(4/22) 국수잔치 / 청소

국수잔치	23구역	청 소	19구역
------	------	-----	------

※ 청소 담당 구역에서는 빠짐없이 적극 참여하여 주십시오.

구역미사 및 형제회 모임

일 정	구 역	성당(지하강당)	형제회
4/18	19구역	9구역	13구역
4/25	12구역	20구역	1구역
5/2	2구역	15구역	22구역

교중미사 전례봉사자 명단

날짜	해 설	복 사	독 서
4/15	유명진	최상림 임공섭 하재민 도현문	강철등 정홍자
4/22	황원선	심재순 김영균 서윤석 조홍환	하재민 백희자

성체 분배자 명단

날짜	토요일	06:30	10시 30분	12시	저녁7시
4/15	장인홍	박승환	손상민 황태영 박형순	김광수	최승일
4/22	장인홍	박승환	손상민 최석준 김광수	김인기	최승일

우리들의 정성

- 교 무 금 9,127,000원
- 주일헌금 6,366,700원
- 감사헌금 주정자 5만원 정단순 10만원 박영자 10만원
엄기자 5만원 김원목 10만원 김형준 5만원
이순규 10만원 어머니회 5만원 임○○ 5만원
이봉자 5만원 이○○ 5만원

회답송



주님 저 희 위 에 당 신 - 일 - 굴 밝은 빛 을 비 추 소 서

교무금 통장 계좌번호 : 우리은행 129-05-001894 예금주 :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재단

(※ 입금인은 교무금 책정자 이름으로 써 주세요.)

● **방송인들과 함께하는 동아리 교실**

과 목	대 상 자	시 간	기 타	
1.영화 만들기	청소년 반 (초등학교 5학년 이상)	토요일 오후 1~3시	- 장 소 / 수강일 : 교육관(소성전) / 매주 토요일 - 수강료 : 월10만원 - 문 의 : 박경석 보스코 수사님, 주일학교 담당신부님 (6738-2200)	
	성인 반	목요일 오전 10시		
2.스피치 교육	청소년 반 (초등학교 5학년 이상)	토요일 오전 10시		
3.스토리 텔링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말씀하시는 행동하는 교리

102. 연대성을 어떻게 구체화할 수 있나요?

연대성은 사회 원리인 동시에 윤리덕입니다. 이것은 사회 질서의 원리로서 “죄의 구조” (<사회적 관심>36항)를 극복하고 사랑의 문명과 연대성의 문명을 일구는 데 기여합니다. 윤리덕으로서의 연대성은 타인의 복리, 특히 곤경 중에 있는 사람들의 복리를 위한 구체적이고 단호한 개입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행동해야 합니다. “연대성의 원리는, 우리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각각 자신이 속한 사회에 빛을 지고 있다는 인식을 기를 것을 요구합니다.” (<간추린 사회 교리>, 195항 참조) 인간은 자기 자신에게서 벗어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인간은 타인이 이미 이루었던 업적을 필요로 합니다. 이로써 타인을 위해 존재하는 것, 그리고 자신의 행동과 결정에서 미래의 세대를 고려하는 의무가 주어집니다.

103. 신앙에서 연대성의 심오한 근거를 찾을 수 있나요?

예수님보다 더 연대적인 사람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도울 수 없는 인류를 향한 하느님의 연대를 드러낸 분이십니다. 하느님의 아드님은 인류 전체와의 연대를 선언하신 것뿐만 아니라, 인류를 위해 당신의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타인을 위한 이러한 희생은 극진한 사랑과 연대성을 표현하고 있으며, 이는 그리스도인의 행동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104. 사회 교리의 원리는 좋은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유일한 토대인가요?

아닙니다. 물론 사회 교리의 원리는 사회 교리보다 앞선 보편적인 가치들과도 결합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 안에서 조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일정한 가치들을 지니고 있어야 하면, 그 가치들과 결합해야 합니다. 사회 원리들은 사회를 형성하는 데 기본 노선입니다. 이때 모든 가치는 하느님의 모상에서 기인하여 인간에게 새겨진 본래의 가치인 인간의 존엄성에 결합되어 있습니다.

105. 어떤 가치들이 사회 교리에서 중요하나요?

진리, 자유, 정의 이 세 가지 가치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공동생활이 실제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여기에 사랑과 자비가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비가 없는 정의는 잔혹하고, 정의가 없는 자비는 분열을 낳습니다.”

106. 자유는 무엇을 뜻하나요?

자유롭다는 것은 인간을 동물보다 높은 차원으로 끌어 올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하느님과 비슷하게 만듭니다. 자유로운 인간만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인격적으로 자유로운 것은 인간을 유일무이하게 만듭니다. 여러 가능성의 범위 안에서 인간은 직업과 소명을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가거나 머무를 수 있으며, 어떤 것은 택하고 어떤 것은 버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유에서 인간은 이유 없이 제한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종교적, 정치적, 문화적 사상들을 자유롭게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의견을 자유로이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인간에게 이러한 자유를 보장하고 자유에 대한 열망을 안전하게 보장하는 법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공동선에 방향을 맞추어 자신의 자유를 추구하는 것은 법적 테두리에 의해 조정되어야 하고, 자유에 대한 파괴적인 열망은 제한되어야 합니다.